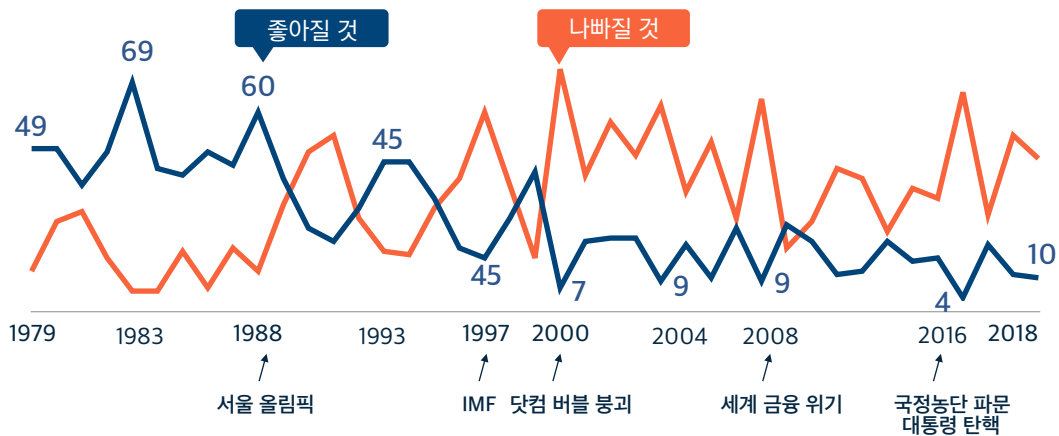


1

한국인의 2020 새해 경기 인식 작년보다 비관론 감소

- 작년 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, 2020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보다 '좋아질 것' 10%, '나빠질 것' 46%, 작년과 '비슷할 것' 42%으로 나타났는데, 2019년 대비 긍정 응답은 1%p 증가, 부정 응답은 7%p 감소하여 비관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과거부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,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음.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 조사 중 '새해 경기가 좋아질 것'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%,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6년의 4%임

[그림] 새해 경기 전망('좋아질 것' 비율, 1979~2019) (%)



[표] 새해 경기 전망(2018 vs 2019) (%)

년도	좋아질 것	나빠질 것	비슷할 것	계
2018	11	53	36	100
2019	10	46	42	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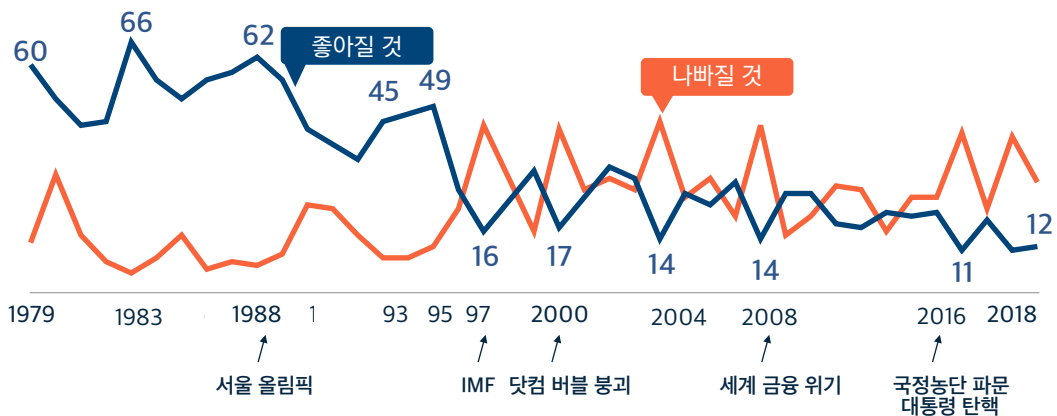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'새해 전망 여론조사', 2019.12.27.
(매년 전국, 만 19세 이상, 1,500명, 개별면접조사, 2019년은 2019.11 조사)

● 2020 새해 개인 살림살이 역시 작년 보다 비관론 감소

- 새해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‘좋아질 것’ 12%, ‘나빠질 것’ 26%, ‘비슷할 것’ 57%로 나타났는데, 2019년 대비 ‘나빠질 것’이라는 비관론이 12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과거 살림살이 전망 추이는 1980년대 낙관론이 50%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으며,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%를 웃돈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음
- 지난 41년간 조사 중 새해 살림살이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6%, 최저치는 2016년과 2018년의 11%로 나타남

[그림] 새해 개인 살림살이 전망(‘좋아질 것’ 비율, 1979~2019)

(%)



[표] 새해 개인 살림살이 전망(2018 vs 2019)

(%)

년도	좋아질 것	나빠질 것	비슷할 것	계
2018	11	41	48	100
2019	12	29	57	100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'새해 전망 여론조사', 2019.12.27.
(매년 전국, 만 19세 이상, 1,500명, 개별면접조사, 2019년은 2019.11 조사)